2022학년도

책제목활용글짓기대회 운영 계획

주관 : 교육연구부(해움터)

Ⅰ. 목적

❑ 책제목을 활용하여 글짓기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Ⅱ. 방침

❑ 각 학급에 양식을 일괄 배부하고 실제 제출한 학생을 참가자로 본다.

❑ 정해진 책제목을 임의 변형하지 않고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띄어쓰기는 허용)

❑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한다.

Ⅲ. 세부운영계획

가. 참가 대상 : 전 학년

나. 대회 일시 : 2022. 4. 20.(수) ~ 2022. 5. 4.(수)

다. 형식 : 양식 별도 첨부(별첨 1)

라. 시상 계획

가) 전체 참가 인원의 20% 내 최우수, 우수, 장려 등급으로 구분하여 시상함

나) 심사 기준

구성 요소	책제목 활용개수	독창성	완성도	계
점수	20	40	40	100

다) 심사자 : 사서, 연구부장

<작성 예시>

다른 사람들	실시간 검색어 1위	너의 우산	다리 위 우리 집	알사탕
당연한 것들	미세먼지	어제 저녁	어떤 고백	여름비
자전거	파란 의자	페인트	소설처럼	여행의 이유
적당한 거리	이상한 손님	친구에게	빨간 벽	하얀 깃털

2050년 지구, 지구는 황폐해져만 간다. 나는 2038년에 태어난 지극히 평범한 초등학교 6학년이다. 부모님의 이야기로는 부모님이 공부하시던 때에도 초등학교가 있었다고 한다. 물론 그때랑 교육방식은 많이 다르다. 오늘 마침 견학가는 날이라 학교에서 특별히 고가로 구매한 VR기계를 써보았다. VR은 집에서도 많이 써보았지만 학교 것은 달랐다. 바람, 움직임 등이 실제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는 놀이동산을 VR로 체험해보았는데 놀이기구를 타고 높이 올라가 떨어질 때 짜릿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우리가 실제로 놀이동산을 가지 않는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는 미세먼지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를 정도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실외활동을 완전히 VR로 경험할 수 있게되면서 사람들의 걱정은 사라졌다. 결국 미세먼지가 지구를 덮어버려 미세먼지 농도가 늘 500μg/m3 이상이고,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되어버렸다. 마침 오늘 **여름비**가 와서 농도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하늘은 뿌옇다. **어제 저녁** 나는 내 친구와 **자전거**에 **페인트**를 싣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잠수교쪽으로 갔다. 역사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 원래의 잠수교는 잠겨버렸다고 한다. 지금의 잠수교는 2029년에 새로 공사한 것이다. 그래서 공사할 때 최대한 예쁘고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나는 어릴 때부터 잠수교가 좋았다. 그 모습과 위치가 마음에 쏙 들었다.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지나가니 정말 기분이 좋았다. '**다리 위 우리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다리를 지나가고 잠시 친구와 멈춰서 있는데 **소설처럼** 얼굴을 아는 아이가 나타나서 "**너의 우산**을 빌려도 될까?"라고 물었다. 솔직히 나는 그 아이에게 우산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빠가게에 왔던 **이상한 손님**의 아들이다. 이상한 손님이 아빠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은 아니지만 남들에게 선행을 베풀지 않으면 아빠가게가 망할 거라는 말을 남기고 갔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들은 아빠는 마음이 복잡하셔서 여행도 다녀오셨다. 내가 **여행의 이유**가 그 이상한 손님때문이냐고 물으니 아빠는 "그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받았어."라고 말하셨다. 잠깐 망설이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우산을 빌려주어야 할까?"라고 물으니 그 친구가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너에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라고 했다. 순간 나는 고민에 빠졌다. 친구가 고민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쓱 웃으며 **알사탕**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다. 내 머릿속에 '저 아이를 도와주면 아빠 가게가 망할 일은 없을 거야.'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결국 우산도 빌려주었다. 빌려주긴 했지만 머릿 속이 복잡해져 주변의 **빨간 벽**에 가서 자전거에 실려있던 페인트 통을 하나 뜯어 마구 페인트칠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엄마는 나에게 **어떤 고백**을 하셨다. 바로 '환경 되돌리기 프로젝트'가 실패하셨다는 걸 알려주셨다. '환경 되돌리기 프로젝트'는 우리 엄마가 주관하시는 환경 프로젝트이다. 최근까지 여러 노력으로 새들이 되살아나 공중에 **하얀 깃털**이 떨어질 정도로 좋아졌는데 다시 환경이 제자리가 되었다고 한다. 엄마는 추가로 혹시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엄마인 걸 알고 좋지 않게 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는 **적당한 거리**를 두라고 당부하셨다. 그런 친구에게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플 거라고 말이다. 나는 내 방의 **파란 의자**에 앉아 여러생각을 했다. 이틀간 많은 일이 일어나 생각이 많아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 아빠 가게가 잘 되고, 엄마 프로젝트도 잘 진행되어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다.